



南北對話停滯期的統一弘報 展開方案

5/5

1975. 5.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연구책임자 : 정 연 권

目 次

1. 北韓의 7·4 共同声明의 一方的 中断背景과 協商戰略의 虛偽性	1
2. 北韓의 平和協定提議의 底意	11
3. 6·23, 8·15 宣言 및 1·18 相互不可侵協定提議의 眞實性 과 國際反應 比較분석	21
4. 우리의 弘報方向	39

**1 . 北韓의 7.4 共同聲명의 一方的 中斷背景과 協商戰
略의 虛偽性**

1. 北韓의 7.4 南北共同聲명의 一般的 中斷背景 과 協商戰略의 虛偽性

南北 5千萬의 民族的念願과 全世界의 期待와 注視속에서 72年7
月 4日 7.4 南北共同聲明發表를 계기로 출발한 南北對話는 겨우 1
年後인 73年 8月 28日 南北調節委員會 北韓側委員長 金英柱의 聲明
으로 中斷된 以來 南北關係는 緊張과 교착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南北調節委員會는 그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에 의거하여
每月 한번씩 板門店에서 幹事會議를 열었었는데 北韓側은 問題의
金大中씨 事件이 발생하기 훨씬전인 7월에 우리측의 提議에도 불
구하고 아무런 뚜렷한 理由도 없이 幹事會議를 거부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金씨事件 以前에 이미 南北對話의 中斷을 마음먹고
있었던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다만 金씨사건을 對話中斷의 名分과
口實로 삼은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南北對話를 中斷시킨 底意를 살피기전에 北韓이 南北對話
에서 과연 무엇을 노렸는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北韓이 노린것은 南北對話를 하는 過程에서 大韓民國 國
民一般의 反共意識의 弛緩 내지 弱화를 企圖했다고 보겠다.

즉 南北對話를 통해 순수한 民族主義的 感情을 浮刻 高潮시킴으로써 이데올로기面의 對立感情을 海이케하여 結果적으로 反共意識을 弱化시킨다는 속셈이었다.

이와같이 우리의 反共경각심을 海이시킴으로써 南韓內의 그들의 소위 革命勢力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領域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北韓이 노린것은 駐韓美軍의 철수라고 본다.

南北調節委에서 北韓이 主張해온 이른바 「軍事的 對峙狀態의 優先解消」가 바로 그것이었다.

北韓은 이 主張과 關係해서 5個項目의 軍事提案을 내놓았지만 그중 가장 核心이 되는것은 駐韓美軍의 철수조항이며 北韓의 「南朝鮮革命」추진의 前提條件으로 北韓이 추구하고 있는 一次的目標은 말할것도 없이 駐韓美軍의 철수이다.

北韓은 南北關係의 自主的解決에 있어 가장 沮害要因이 되고있는 것이 外國軍의 介入 즉 駐韓美軍인것처럼 對外的으로 宣傳함으로써 國際적으로 美軍撤收를 要求하는 輿論을 造成하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그밖에 北韓은 南北對話의 形式을 통해 北韓의 對外이미지들 好

轉시켜 보려고 했을 것이다.

北韓은 그 体制의 閉鎖性, 教條性 그리고 好戰性, 非妥協性으로
因해 심지어 같은 社會主義陣營안에서도 敬遠視당해 왔던 것이 사실
인데 南北對話라는 平和指向的인 제스추어를 보임으로써 國際的인
緊張緩和의 潮流에 順應하는 듯한 이미지를 풍겨 그들의 「平和外
交攻勢」를 有利하게 展開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計算이 또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有關係列強들의 和解 움직임속에서 北
韓만이 홀로 그러한 和解潮流에 逆行할 수 없게 되었다는 周邊狀
況變化에서 오는 事情도 또한 指摘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70年4月 中共과 北韓關係는 周恩來의 平壤訪問을 계기로 關係改
善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당시 周의 平壤訪問의 직접적인 動機는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는 骨子の 「닉슨」 佐藤
共同聲明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바로 이듬해 「닉슨」 大統領의 中共訪問이 발표되자 北
韓은 당황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어 72年2月の 「닉슨」 大
統領의 中共訪問과 그에 이은 田中日首相의 北京訪問과 그에 따른 日
中共關係正常化등 中共의 美日接近이라는 새로운 狀況 변화속에서 北

韓은 스스로의 孤立을 脱皮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南北對話에 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對話가 進行함에 따라 北韓은 그들의 意圖와는 다른 새로운 試鍊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

첫째로 그들이 기대했던대로 南韓에서의 反共意識이 해이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教條主義적이고 千篇一律적인 태도에 대해 오히려 南韓國民들의 厭症과 경계심이 높아졌고 反面 南北間의 往來가 거듭됨에 따라 그동안 外部와의 완벽한 情報 차단에 의해 外部物情을 몰랐던 北韓住民들 사이에 차츰 회의와 동요의 徵兆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外部世界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開眼이야말로 北韓과 같은 後進共產社會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東歐에서는 가장 生活水準이 높은 東獨도 西獨과의 關係를 열때 自由化 물결의 流入으로 東獨의 體制에 동요가 일게 될것을 극도로 두려워 했던 사실을 볼때 東獨과도 비교가 안될만큼 後進共產體制인 北韓으로서는 당연한 두려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駐韓美軍의 철수문제도 南北對話를 통해 解決될 수 없다는 사실을 北韓은 또한 認識하게 되었다.

「유엔」軍司令部는 실사 멀지않아 解体된다 할지라도 駐韓美軍은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拠해 그대로 存續되는 것이며 따라서 駐韓美軍 철수가 南北對話進行에 있어 前提가 된다는 主張은 國際的으로도 說得力이 약한 것이다.

그리고 現規模의 駐韓美軍은 韓半島에서의 武力紛爭의 再發을 豫防하는 하나의 抑止力의 役割을 하는 것이며 基本的으로 攻撃的인 것이 아니라 防衛的性格을 띠운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가령 「유엔」總會에서도 「유엔」軍司가 아니라 駐韓美軍 問題만을 拳論될 경우에 東歐諸國에 막대한 兵力을 駐屯시키고 있는 蘇聯의 立場으로서는 駐韓美軍問題를 主張하기가 거북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東·西獨에 각기 外國軍이 駐屯하고 있지만 東·西獨의 關係改善과 基本條約체결에 그것이 아무런 支障을 주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봐도 北韓側의 駐韓美軍 철수 고집은 呼訴力이 없는 것이다.

北韓이 南北對話를 中斷시킨 또하나의 중요한 原因은 우리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稱때문이었다고 본다.

北韓은 최소한 두가지 理由에서 6·23 宣稱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동안 全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을 名分삼아 住民들에게 緊張感을 強要해 統治해온 北韓으로서 6·23 宣言을 받아들일뎐 統治의 名分을 상실하게 되고 또 南北韓의 統一時까지의 平和共存이라는 취지의 6·23 宣言을 南北韓의 分斷恒久化로 선전할 수 밖에 없는 北韓政權으로서 6·23 宣言의 수락은 결국은 그들의 赤化統一目標을 일단 포기한다는 뜻이 될것이기 때문에 또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둘째는 만약 6·23 宣言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엔 中蘇등 社會主義國家들의 大韓民國承認을 北韓스스로가 容認하는 결과가 될것이기 때문에 大韓民國과 共產圈과의 關係改善의 길이 열리는 反面 北韓은 그들의 後見勢力으로 부터의 支持度가 相對적으로 그만큼 弱化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北韓으로서도 美·日등 西方國家들과의 關係가 튼다는 利點도 있지만 北韓의 勢力기반은 어디까지나 共產圈인 만큼 6·23 宣言수락에서 오는 北韓의 共產圈內에서의 地位低下를 北韓은 決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8·28 金英柱聲明을 살펴볼때 北韓의 南北協商戰略의 虛偽性을 새삼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8·28 声明에선 『對話 계속의 필요성은 認定한다』고 말하면서도 南韓側共同委員長이 될 사람은 『民族的良心이 있고 民族分裂의 固定化를 반대하며 真正으로 平和統一을 念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主張한바 있는데 이말은 바꾸어 말하면 大韓民國政府의 安保, 統一政策과 反共政策에 반대하며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을 표명한 大韓民國의 政策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또 8·28 声明은 對話 계속의 條件으로 大韓民國이 ①南北共同声明의 原則을 존중하며 ②「두개의 朝鮮」路線을 취소하며 ③「祖國統一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④체포·투옥된 「愛國者」들을 석방하라는 要求條件을 내놓았다.

이말은 다시말해서 ①大韓民國이 6·23 宣言을 취소하고 ②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의 廢止를 포함하여 反共政策을 止揚하고 ③反共法, 國家保安法등을 위반하여 判決에 의해 服役中인 者들을 석방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大韓民國體制가 北韓의 體制에 同質化되기 前에는 對話를 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들어낸 것이며 南北韓이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한 對話』를 통해 民族의 團合과 平和 그리고 統一을 追求하기로 合意했음을 内外에 천명한바 있는 7·4 南

北共同声明의 基本精神을 全面的으로 부정하는 虛偽性을 들어낸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北韓은 南北對話를 促求하는 「유엔」의 決議나 國際輿論을
배려해서도 南北對話자체의 必要性은 여전히 認定하면서 실제로는
現時點에서 對話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우기 韓國內部の 政情이 조용하지 않을뿐아니라 최근의 印支에
서의 共產勢力의 勝利로 고무를 받은 北韓으로서는 결코 서둘러
對話를 再開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2 . 北韓의 平和協定提議의 底意

2. 北韓의 平和協定提議의 底意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소위 平和協定은 애당초 中共首相 周恩來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으로 周는 71年 8月 10日 「뉴욕타임스」紙의 「제임스·레스턴」記者와의 會見에서 『韓國戰에서 이루어진 休戰協定을 종결시키고 平和協定으로 代替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후 金日成은 72年 1月 10日 日本의 読売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南北間의 平和協定체결의 필요성을 밝혔고 또 73年 3月 14日부터 16日까지 平壤에서 열린 南北調節委 第2次會議와 6月 12日부터 14日까지 서울에서 열린 第3次會議에서 北韓은 또다시 平和協定체결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北韓은 軍備縮小, 兵力減縮, 軍裝備導入中止, 美軍撤収 그리고 이러한 事項들을 保障하는 平和協定체결등 5個項目의 軍事問題優先決定을 주장하고 이들 軍事問題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對話는 더 이상 進展시킬 수 없으며 南北關係도 改善될 수 없고 統一에 관한 어떠한 問題도 해결될 수 없다고 고집했었다.

그러면 北韓이 平和協定을 提議한 底意가 어디에 있나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는 北韓이 그들의 힘의 優位를 確保하기 위한 計略인데 그들은 休戰後 20 余年동안公然히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全人民의 武装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軍裝備의 現代化라는 四大 軍事路線을 내세워 戰爭準備에 狂奔해 왔으며 그들의 戰爭準備態勢를 은폐한채 形式뿐인 軍備縮小나 兵力減縮을 先行시켜 平和協定을 체결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安保態勢만을 약화시켜 그들의 힘의 優位를 확보함으로써 決定的인 時期에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이룩하겠다는 속셈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막상 軍縮, 兵力減縮 軍裝備導入中止를 約束한다 하더라도 相互現地査察을 하지 않는限 도저히 實効를 거둘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休戰協定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봐도 능히 알수 있는 일일것이다.

둘째는 平和協定の 前提로 駐韓美軍의 철수를 내세움으로써 美軍 철수를 관철시켜보자는 것이다.

北韓의 美軍撤収主張이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軍事力의 優位를 확보하려는 하나의 戰術임은 말할것도 없다.

현재 南北韓間의 힘의 均衡은 美軍의 駐屯을 前提로 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美軍이 철수하면 南北間의 軍事力의 均衡

이 깨어지고 그때는 武力 赤化統一을 위한 絶好의 決定的 時期가 到來할 것임은 물론일 것이다.

또 駐韓美軍의 存在는 韓國防衛를 위한 美國의 決意의 象徴的 表明이기도 하기때문에 美軍이 철수할 경우 一般國民에게 미칠 心理的 影響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韓國軍의 自主防衛態勢가 어느정도 갖추어질 경우일 지라도 급격한 美軍撤収는 北韓의 誤判을 초래할 위험성과 일반의 士氣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때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이 우리가 提議한 不可侵協定을 拒否하고 대신 非現實的이며 부당한 平和協定을 固執하고 있는 것은 平和協定체결의 前提가 되어있는 美軍撤収를 관철시켜보려는데 그 底意가 있는 것 이라고 본다.

한편 北韓은 우리에게 대한 平和協定체결주장이 實効를 거두지 못 하게 되자 다음엔 美國에 대해 직접 平和協定을 맺자고 提議하기 에 이르렀다.

즉 北韓은 74年 3月 23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第3次會議에서 美國에 대해 53년에 署名한 韓國休戰協定에 代체할 平和協定체결을

위한 協商을 갖자고 主張하고 ①兩側은 相互侵犯하지 않기로 하며 武力衝突의 위험요소를 除去할 것을 약속하고 ②軍備競争을 中斷하고 武器나 戰爭物資의 搬入을 중지하고 ③駐韓外國軍은 「유엔」軍名稱을 除去하고 가능한 限 早速한 時日內에 철수해야 하며 ④모든 外國軍이 韓國에서 철수한 뒤 韓半島에는 어떤 外國勢力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도 금지한다는 4個項目의 對美雙務平和協定案을 提議했다.

이러한 提議에 대해 美國務省代弁人은 韓國問題는 南北韓間에 직접 해결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다시금 強調하고 또한 최근 韓國이 提議한 南北韓不可侵協定이나 南北韓間의 對話持續을 促求한 第28次 「유엔」總會決議에 대한 美國의 支持를 再確認하면서 한편 駐韓美軍의 性格에 대해서는 그것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韓國政府의 要請과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게 되었다.

그동안 北韓이 가장 신랄한 비난을 가해왔고 최대의 敵으로 삼아왔던 美國에 대해 이와같이 平和協定체결을 提議하게 된 데에는 한마디로 對美宥和接近제스추어의 한 手段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더우기 北韓이 그들의 最高人民會議의 이름을 빌어 美國議會에

대해 그와같은 提案을 傳達했다는 것은 美國의 全般的인 對外介入의 減縮을 主張하는 一部 美議會의 輿論을 利用하여 美國의 對韓 關与度를 低下시켜보려는 속셈에서 였다고 보겠다.

國際的인 側面에서 보면 그동안 積極적인 門戶開放外交政策을 천명한 우리의 6·23 宣言과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指向하는 南北韓의 不可侵協定提議가 國際社會에서 크게 共鳴을 받게되자 그러한 效果를 減退시키고 그들도 平和指向的이라는 對外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北韓나름대로의 하나의 代案提示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北韓이 韓國을 排除하고 平和協定の 相對者를 美國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地位를 相對的으로 格下시키고 또한 韓美間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離間시켜보려는 策動의 하나이기도 하다.

軍事的觀點에서는 平和協定이라는 偽裝된 名分으로 駐韓「유엔」軍과 美軍의 철수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國의 防衛態勢를 弱化시켜 그들의 目標인 武力赤化統一의 機會를 앞당긴다는 底意가 또한 있는 것이다.

특히 北韓이 駐韓外國軍의 「유엔」軍 名稱除去를 要求한 것은

「유엔」과 韓國과의 特殊關係를 斷絶시켜 武力紛争의 再發時 「유엔」이 또다시 集團적으로 韓國防衛에 介入치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對「유엔」 基本戰略의 일환이다.

이미 「언커크」의 解体로 「유엔」의 政治的代表機關이 없어진 이마당에 韓半島에 확고한 平和體制가 制度化되기 전에 「유엔」의 軍事的代表機構인 「유엔」軍司마저 性急히 없어질 경우엔 韓國의 安保에 重大한 影響이 招來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北韓은 특히 印支에 대한 美國의 援助提供에 강력한 씩기를 박은바 있는 美議會의 이른바 新孤立主義勢力의 대두를 注視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對美平和協定체결주장을 강조함으로써 美國朝野의 輿論을 그들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北韓의 그와같은 기만적이고 虛構적인 對美外交攻勢에 경계를 하면서 특히 美議회가 北韓의 宣傳에 현혹됨이 없도록 對美議會說得外交努力을 展開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北韓이 진실로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定을 바란다면 韓國問題는 南北韓 當事者들에 의해 自主적으로 外勢의 干涉없이 해결

한다는 취지의 7·4 共同声明의 精神이나 또는 그것을 全幅的으로
支持하는 國際輿論을 감안해서라도 우선 南北韓間의 關係改善에 最
優先順位를 두어 南北對話에 注力해야 할 것이며 第三國과의 問題는
南北韓關係가 好轉 安定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順序라고
믿는다.

3 . 6 . 2 3 , 8 . 1 5 宣 言 및 1 . 1 8 相 互 不 可 侵 協 定 提 議 的
眞 實 性 과 國 際 反 應 비 교 分 석

3.6.23, 8.15 宣言 및 1.18 相互不可侵 協定 提議의 眞實性과 國際反應

73年 6月 23日 朴大統領은 새로운 平和統一外交政策을 발표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은 7個項目으로 된 것이었다.

- (1) 祖國의 平和的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課業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2)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 (3)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誠實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 (4)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5) 「유엔」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代表가 參席하는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7)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紐帶關係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新外交政策中 對北韓關係事項은 『統一이 성취될때까지 過渡的 期間中の 暫定措置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6·23 宣言의 취지는 첫째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이라는 民族의 至上課業을 窮極的인 目標로 堅持하면서 그러한 統一에 까지의 過渡的 期間에 있어 南北韓이 平和共存을 유지하기 위해 相互 內政不干涉의 原則下에 南北對話를 꾸준히 發展시켜나가고 한편 對外的으로도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에서 共存을 누리자는 즉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강조한 것이고 둘째는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 다시말하면 中蘇東歐諸國등 社會主義國家들에게 우리의 門戶를 開放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西方側諸國에 의한 北韓承認을 默示的으로 容認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이다.

南北韓이 同族相殘의 武力에 의해서나 또는 平和的方法에 의해서나 가까운 장래에 統一을 成就하기 어렵다는 것이 冷嚴한 現實인 이상 統一때까지의 過渡的 期間中에 南北韓이 걸어야 할 最善의 現實的인 길은 事實상 6·23 宣言에서 表明된 길밖엔 없다고 確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이와 같이 現實적이고 妥當性있는 우리 의 提案을 拒否한데에는 몇가지 底意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6·23 宣言이라는 國際社會에서 共鳴 同調를 받는 外交政策을 우리가 먼저 提議함으로써 北韓이 外交的 이니셔티브을 우리 에게 빼앗겼다는 점에서 反射的으로 反對를 위한 反對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6·23 宣言은 統一時까지의 南北韓의 暫定的 平和共存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않으면 그들이 北韓住民들에게 한결같이 主張해왔던 南韓의 赤化統一이라는 大義를 그들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는것이 되기때문에 그들의 硬直化, 教條化된 統一政策을 하루아침에 바꿀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北韓이 6·23 宣言을 받아들여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이 定着되고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에서 共存이 認定되게 되면 國

內的으로는 南韓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기 어렵게 되어 北韓内部의 結束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것이고 또 對外的으로는 北韓이 南韓에 대한 武力批發이나 南侵을 할 수 있는 길이 스스로 拘束받게 된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北韓이 6·23 宣言을 받아 들이게 되면 中蘇東歐 등이 南韓을 承認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동시에 美日 등 西方國家들도 北韓을 承認하는 이른바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北韓이 西方側에 進出할 수 있다는 利點은 있지만 反面 共產國家들과 우리와의 關係가 열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北韓의 共產圈內에서의 地位는 그만큼 弱化된다는 이야기가 될것이다.

北韓의 後見 支援勢力은 어디까지나 共產圈인 만큼 共產圈에 우리가 進出하게 될때 北韓은 相對的으로 共產圈內에서의 立場이 底下될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蘇聯과 東歐諸國이 西獨과 關係改善을 하려고 했을 때 東獨이 東歐圈에서 누렸던 그동안의 地位가 弱化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울브리히트」政權이 蘇聯의 西獨接近에 반발했던 경우와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만약에 北韓이 우리의 6·23 宣言을 받아들일 경우엔 첫째

로 「유엔」을 비롯한 모든 國際機構에서의 北韓과의 共存으로 東西冷戰의 해묵은 遺産의 하나인 南北對立 關係를 好轉시켜 줄 수 있기때문에 그만큼 國際的인 緊張緩和에 寄與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南北韓은 彼此 相對方的 國際社會에의 進出을 저지하기 위한 非生産的이고 過重한 부담을 덜어 놓을 수 있을 것이며 또 對外的으로 同族間의 지나친 競爭 敵對視의 關係가 止揚됨으로써 韓民族의 긍지 理性 威信이 國際社會에서 새로운 認識을 받게 될수 있다는 利點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從來 閉鎖的이었던 北韓을 國際社會에 誘致함으로써 그들의 排他性, 硬直性을 다분히 순화시킬수 있다면 그것은 結果적으로 南北對話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國際間의 理解와 親善增進을 위해서도 좋은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 加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統一을 저해하는 南北韓의 恒久的 分斷固着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南北韓의 統一은 窮極的으로는 韓民族의 自決原則에 의 해 平和的 自主的으로 達成되어야만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同時加入이란 어디까지나 統一까지의 過渡期間中の 잠정적인 措置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이 韓國統一에 대한 實質的인 權能이나 拘束力을 가지고 있지 않은 以上 南北韓과 「유엔」과의 어떠한 關係設定도 어디까지나 韓民族의 自由意思여하에 따라 左右되는 可變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한편 6·23 宣言에 대한 國際的 反應을 살펴보기로 한다.

美國務省은 즉각 聲明을 발표, 同提議에 全的으로 同意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建設的인 提議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保에 관심이 있는 모든 政府로 부터 신중한 注目과 支持를 받을만 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또한 約 2年前에 시작된 南北對話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英國政府는 6·23 宣言에 대해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크게 貢獻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英國도 7·4 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한 바 있었고 그들의 成功的인 結果를 기대해 왔다고 밝혔다.

「유엔」의 「발트하임」事務總長은 朴大統領의 6·23 宣言발표 4時間前 韓豹項「유엔」大使로 부터 그에 관한 報告를 듣고 그를 전폭적으로 支持 理解한다고 말했다.

濠州는 南北韓이 願할 경우 南北韓이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支持할 것이며 또한 北韓이 「유엔」에 加入하기에 앞서 韓國問題에 관한 어떠한 「유엔」討議에도 北韓이 參加하는 것을 支持한다고 「취틀람」首相이 밝혔다.

日本은 「오히라」(大平)外相이 記者會見을 갖고 6·23 宣言에 言及 『現實的이고 建設的인 施策』이라고 평가하고 『韓國政府首腦의 용기있는 결단에 敬意를 表하며 마음속으로 부터 환영하며 앞으로의 南北對話와 協調가 한층 促進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特別聲明은 韓國이 現實的인 기초아래서 보다 열매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窮極的인 韓半島統一에 害를 주는것이 아니라고 보며 統一 기초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日本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이」政府는 6·23 宣言을 환영한다고 「타놈」首相이 公式聲明을 통해 밝히고 韓國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화되어 이제는 急變하는 世界에서 現實的이며 實利的으로 対処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評價했다.

「싱가포르」는 「보가르스」外務次官이 6·23 宣言은 東南亞의 緊張緩和와 韓國의 平和統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의 「라바사」外相은 『6·23 宣言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멕시코」는 韓國의 平和統一 노력에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하고 南北會談進展결과에 따라 韓國이 별도로 要請할 때까지
對韓政策은 不變할 것을 確約하기도 했다.

「이집트」는 外務省官吏와 韓國總領事와의 會談에서 6·23 宣言을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위해 도움이 되는 建設的인 조치라고 찬양했
다.

한편 各國政府의 이와같은 窮極的인 公式的인 입장 표명 못지않
게 海外言論의 反應 또한 매우 좋았다.

美國의 「뉴욕타임스」紙, 「워싱턴·포스트」紙를 비롯 「프랑스」
의 「르몽드」紙 그리고 日本의 主要新聞등 世界의 有力紙들은
6·23 宣言은 韓半島의 平和를 增進시키기 위한 建設적인 「이니시아
티브」 「大躍進措置」 「놀랄만한 朴大統領의 誠實性」등의 題目으로
大書特筆하였으며 매우 好意的인 反應을 보였다.

「아르헨티나」의 「라·나시온」紙는 『6·23 宣言은 現代史의 가
장 劇的인 사실의 하나』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自由陣營내지 一部中立國家들이 6·23 宣言에 대한 支持를
表明한 것과 대조적으로 共產國家들은 아무런 反應을 보이지 않았

다는 점이 또한 關心꺼리라고 보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重要政策이 발표되면 共產國家들은 거의 일제히 否定的 비관적 反應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常例로 되어왔는데 6·23 宣言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의 對共產圈門戶開放이라는 그들의 關係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反應을 보이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注目을 끌게 한바있다.

一次的으로 北韓의 反應을 기다리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하나의 理由는 6·23 宣言이 現國際情勢를 감안해 時宜에 맞는 現實的인 措置이고 社會主義陣營과도 關係改善을 할 用意가 있다는 好意的인 政策의 천명이라는 점에서 共產國家들 조차 굳이 正面으로 반대할 名分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6·23 宣言은 國內外로 부터 압도적인 支持와 환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반대에 부닥쳐 實効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北韓은 6·23 宣言이 발표된 그날 저녁 平壤에서 있었던 「체코」 共產黨幹部를 위한 歡迎群衆大會에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은 民族分斷을 固定化하는 것이므로 單一國家로 「유엔」에 加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聯邦制를 實現하여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提案을 반대하고 나섰다.

北韓側이 「유엔」 同時加入을 반대하고 60年以來 되풀이 하여온 소위 南北聯邦制案을 다시 들고나온것은 우리의 政策轉換이 國際潮流에 부응한 적절한 決斷이라는 점에서 内外의 呼應을 받게되자 당황한 나머지 本能的으로 반발한 상투적인 宣傳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北韓이 그동안 「유엔」 加入申請을 냈을뿐 아니라 「유엔」 傘下機關에 加入하려고 注力해 왔고 또 우리와 이미 國交를 맺은 나라들과도 外交關係를 동시에 수립하려고 血眼이 되어 왔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때 「유엔」 同時加入을 새삼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北韓의 이른바 聯邦制案은 결코 새로운 着想은 아니다.

聯邦制를 北韓이 처음으로 提議한 것은 60年8月15日에 행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였고 같은해 11月11日과 19日, 24日 등 연이어 金의 演說이나 勞動新聞社說 등을 통해 되풀이 되었다.

北韓이 聯邦制案을 主張하는 것은 統一念願을 안고있는 소박한 民族感情을 자극하여 南韓의 國論을 分裂시키기 위한 偽裝平和攻勢

의 일환으로서 宣傳的인 效果를 노리자는 底意에서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北韓이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는 窮極的인 戰略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中間目標로서 긴장완화라는 國際情勢의 變化의 潮流를 타고 國際社會에서 南北韓의 地位를 一對一로 同等하게 認定받으려는 소위 同格化政策을 多角的으로 추진하는 戰術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人口나 國力面에서 우리보다 劣勢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主張대로 南北韓의 土着人口比例에 의해 自由選舉를 실시할 경우 그들이 敗北할 것은 自명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對等한 立場에서 一對一의 存在로 認定을 받아 後日 統一協商에서 有利한 위치를 確保하자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은 말로는 하나의 聯邦共和國를 내세우면서도 實質的으로는 두개의 韓國 또는 南北韓同格의 印象을 부각시키기 위해 外國이나 國際機構에 대한 外交的進出에 血眼이 되고 있는 것이다.

元來 聯邦制란 2個以上の 政治單位가 相互間에 利害 共通性이 많아 個別的인 努力보다는 共同努力을 기울일 경우 보다 效果的으로 共同利益을 얻을수 있다고 판단할때 그들 各政治單位가 가지고

있는 主權의 特定된 一部分을 委任하는 聯邦政府를 수립하여 그로 하여금 委任받은 行使를 遂行케하는 國家形態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오늘날 南北韓은 政治, 經濟, 文化, 社會 등 모든 分野에서 利害 共通性을 찾을수 없을 만큼 異質化되어 있어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聯邦國으로 結合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南北韓이 聯邦制로 結合될 수 있는 條件이 갖추어 질수있는 상태가 된다면 굳이 聯邦國으로 될것이 아니라 統一된 單一國家로 實現되는 時期가 될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6·23 宣言은 韓半島에서의 統一時까지의 平和共存, 國際的 緊張緩和의 潮流에의 呼応이라는 現實的이고 타당성있는 提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반대로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6·23 宣言의 결과 外交的으로 우리에게 적지않은 不利한 影響을 招來케 되었다는 점을 또한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즉 北韓의 반대때문에 共產陣營은 우리에게 전면 門戶를 開放치 않고 있는 實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友邦들이 北韓의 門戶를 開放하는 것을 우리가 容認하게 된이상 北韓의 西方側 接近을 저지하는 名分이 희박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美, 日 그리고 英·仏·西獨 등 우리의 主要友邦들이 一方的

으로 北韓을 承認하지는 않겠지만 그밖의 많은 우리와 이미 修交한 西方側國家들이 北韓을 承認하는 추세를 現實적으로 막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이와같이 自由陣營國家들이 性急하게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하게 되면 그것은 相互主義의 原則을 깨뜨리고 南北韓의 外交的均衡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自由友邦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強化해 나가면서 衡平의 原理를 무시한 성급한 北韓接近을 삼가도록 說得해야만 할 것이고 한편 共產陣營도 對韓國政策을 변경시켜 나가도록 誘導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北韓은 中蘇對立을 교묘하게 利用하여 中蘇와의 等距離外交路線을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中蘇 어느 한쪽도 北韓을 자기편에서 離脫시키지 않기 위해서 北韓의 눈치를 살피고 우리와의 關係改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더우기 中共은 지난번 金日成의 北京訪問에 이어 발표된 共同聲明에서 「北韓이 韓半島 唯一의 合法政府」임을 再確認했는데 이것은 金日成이 우리의 6·23 宣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豫想되는 東西兩陣營에 의한 이른바 南北韓交叉承認方式을 中共이 반대할 것을 강력히 要請해 결국 中共의 同意를 얻게된 셈이라고 보

겠다.

金으로서는 특히 今年中에 있을 豫定인 「포오드」美大統領의 中共訪問에서 南北韓交叉承認問題가 필경 提起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豫想해서 事前에 中共에게 싸기를 박은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中共은 北韓의 이러한 要求를 들어주는 대신 아마도 印支諸國에 대한 中共의 입장을 支持하겠다는 北韓의 다짐을 받았을 可能性도 있다고 보겠다.

北韓의 방해로 共產圈과의 外交關係開設이 쉽지 않은 이상 우리로서는 共產圈과 우선은 初步的인 交流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政治的次元으로 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는 漸進的 關係改善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만 할것 같다.

또한 오늘날의 國家關係는 理念보다도 國家間的 實利가 優先되는 傾向으로 나가고 있기때문에 共產國家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匹차 어떠한 實利를 주고 받을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檢討해서 實利追求의 幅을 우리쪽에서 넓혀나가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蘇聯이 西獨과의 和解를 모색하게된 理由의 하나가 蘇聯이 西獨

의 資本과 技術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고 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共產圈에서 볼때 우리가 西獨만큼의 利用價値가 있는 國力을 가진 나라는 못되겠지만 그러나 匹차간에 實利를 찾을 수 있는 協力의 分野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한 研究開發을 서둘러야만 할것이다.

이상 6·23 宣言을 내게된 우리의 正當性, 反應, 問題點 등을 지적했지만 現段階에서 南北韓 5千萬民族이 共存共榮해 나가면서 우리民族의 宿願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또다른 武力相殘만은 회피해야만 할것이고 對話를 통해 平和統一의 기반을 확실히 쌓아 올려 나가야만 할것이다.

이와같은 정신에 입각해서 70年8月15日 「平和統一의 構想」이라는 歷史的宣言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72年7月4日 7·4 南北共同聲明이 나와 비로소 南北間의 對話의 길이 트이게 되었으며 이어 6·23 宣言으로 南北韓의 國際社會에서의 共存政策이 천명되었고 74年8月15日엔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 制度化하기위한 相互不可侵, 南北間의 交流協力의 促進,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의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 實施라는 平和統一三大基本原則이 提示되기에 이르렀다.

70年8月14日の 8·15宣言以來 提示되어온 우리의 立場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가능한한 早速히 그리고 自主 平和的으로 實現하기 위한 一貫된 不變의 意志이며 또한 實質的인 統一基盤造成策이기도 한것 이다.

이러한 基本方向에 의해 南北間의 不信이 해소되고 유구한 民族文化의 傳統위에 民族的同質的인 회복되었을때 우리는 비로소 南北韓自由總選舉를 통해 우리의 오랜 宿願인 統一民主國家를 建設할 수 있게 되는것 이다.

우리는 北韓이 이러한 우리의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統一基本方向에 하루速히 同意하기를 促求하며 北韓側이 우리에게 呼應해 오도록 꾸준한 忍耐로 多角的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만 할것 이다.

4 . 우리의 弘報方向

4 . 우리의 弘報方向

비록 南北對話의 停滯期에 있어서도 一貫性 있는 우리의 統一政策提示의 必要性은 더욱 있다고 본다.

7·4 共同聲明이 나왔을때 南北으로 갈려서 4半世紀를 살아온 5千万 韓民族은 必야흐로 新時代의 到來를 熱烈히 반겼고 또한 全世界도 激勵와 祝賀의 拍手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3年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國民들은 北韓의 또다른 南侵 위협에 惴惴공공하면서 不安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있는 實情이다.

北韓이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理由에서 一方的으로 對話를 中斷하여 對南中傷誹謗, 休戰線의 땅굴, 西海에서의 批發行爲 등으로 우리 國民들의 民心을 교란 긴장케 한데다 또 최근의 印支事態의 余波가 혹시 韓半島에 까지 물려 올것이 아닌가 하는데서 國民들은 더욱 不安感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政府로서는 이러한 對外的인 일련의 事態에 對処하여 國民들의 警覺心을 높이고 北韓의 위협에 萬全을 期하기 위해 北韓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印支事態 등에 대해 大々적으로 國民들에게 注意를 환기시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편 그것이 國

민들의 警戒心을 넘어 공포감을 갖는다든지 위축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일은 政府가 國內의 一部 學園, 教會, 野黨, 在野勢力 등의 民主回復 움직임을 鎮靜시키기 위해 外部情勢를 지나치게 誇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내지 않도록 政府는 또한 格別히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의아심이 생기게 될 경우엔 진짜 위협도 그것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不信感이 造成케 될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外部情勢의 評價, 分析, 報道에 있어 보다 公正, 冷靜, 客觀性을 갖고 臨해야만 할 것으로 본다.

애당초 維新體制는 民族의 相殘을 방지하고 南北對話를 통해 平和的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大義에서 출발한 것인만큼 위협에 대한 우리의 安保態勢엔 물론 萬全을 期해야만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平和統一의 目標, 設計, 展望을 國民들에게 항상 提示함으로써 統一問題에 대한 一貫性있는 政策을 堅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南北對話는 각기 南北韓內部的 事情이나 國際情勢의 變化 등에 따라 進退起伏이 豫想되는 바이지만 國民들로 하여금 統一에의 希望과 念願을 포기 惝念치 않도록 하기 위해 持續的인 平和統一政策의

堅持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에 弘報手段의 보다 效果的인 活用問題에 대한 몇가지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현재 北韓에 관한 報道는 極히 制限된 經路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資料도 매우 限定되고 있는 實情임으로 國內新聞, 放送, TV 등 弘報媒体에서 北韓의 實체에 대한 幅넓은 報道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國內에서는 内外通信정도가 北韓에 관한 記事를 내보내고 있으며 断片的으로 外信, 日本新聞, 雜誌등을 통해서 入手되고 있을 정도인데 内外通信의 경우는 그 内容이 充實 풍부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客觀性을 잃은듯한 印象이 짙어 新聞編輯者의 立場에서 선뜻 다루려고 하지않는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北韓에 대한 記事를 보다 正確하고 客觀性을 띄운것으로 充實化하여 弘報媒体에 提供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言論機關 자체에서도 北韓에 관한 資料入手, 研究, 分析, 報道에 보다 充實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要請된다고 본다.

그리고 가령 官에서 提供해주는 北韓에 관한 記事를 그대로 轉載하는 경우보다 言論機關 스스로가 取材 整理종합해서 報道하는

경우 讀者에게 더욱 어필하고 신빙성을 주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言論機關은 政府關係當局과의 協調를 필요로 해야만 할것이고 특히 資料를 求得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가령 최근에 北韓의 對外取支가 惡化되어 있어 外債를 제대로 償還치 못하고 있다는 報道가 나온바 있었는데 그 具體的 原因이나 背景에 대해서는 거의 報道가 안되고 있다.

따라서 가령 内外通信같은 데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있는 記事를 내보내면 좋을것같고 또 言論機關 스스로도 北韓問題에 대한 보다 알찬 研究와 報道를 하도록 노력해야만 할것 같다.

北韓의 用語解説, 動靜, 政治外交 經濟情勢등에 대해 不定期的이라도 좋으니 固定칼럼같은 것을 만들어 充實히 報道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가 共產主義를 이기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相手方을 정확히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北韓의 實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言論에서 보다 北韓問題에 대한 취재 보도에 注力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政府가 對北韓關係라든가 또는 對共產圈 및 中立國外交에

있어 言論과 有機的으로 協調하여 國家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가령 政府의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提案이라든가 또는 相對方의 意思를 타진해 보기위한 觀測氣球의 役割같은 것을 言論으로 하여금 支援케 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共產國의 경우는 官營言論機關을 통해 나오는 報道가 政府 입장을 代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反해 自由陣營의 경우는 그러한 報道를 곧 政府의 입장대변으로 받아 들일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有力하고 中立的인 言論機關으로 하여금 政府의 입장을 반영한 報道나 主張을 하게 하여 相對方의 反應을 타진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또 言論機關이 실제로는 政府의 協調를 받아서라도 獨自的인 輿論調查 같은 것을 실시하는 形式으로 해서 國民 各階層의 輿論調查 결과를 報道할 경우엔 相對方이 볼때 官主導型의 것이 아니라고 간주해 오히려 效果를 거둘수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國民들이 統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北韓의 땅굴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問題같은 것을 言論機關 스스로의 公正한 輿論調查를 통해 公表할 경우엔 北韓當局도 그 결과에 대해 注目을 하게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음에 對外關係의 側面에서도 경우에 따라 政府와 言論의 協調
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크메르」越南이 共產主義者에 의해 失陷되는 바람에 그
나라들과 韓國과의 外交關係도 자연 두절되고 말았다.

특히 越南에 派兵까지 했던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越南이나 「크
메르」의 新政權과의 外交關係 回復이 결코 容易한 일아 아님에
틀림없다.

그러나 國家關係란 냉철한 國家利益追求를 위해서는 과거의 일에
만 執着할 必要는 없고 可能한限 새로운 局面을 주저없이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

「크메르」, 越南이 떨어지자 이미 一部 反共國家들도 재빨리 그들
과의 關係樹立의 意思表示를 하고 나섰다.

우리의 경우엔 특히 北韓의 방해 등으로 당장엔 어렵겠지만 그
들도 對外路線을 非同盟 中立을 표방하고 나온이상 우리 政府가
갑자기 태도를 표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령 言論에서는 政府의 諒
解下에 新政權과의 親善이라든가 關係開設 問題등을 主張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또 言論에서 그러한 論調를 表明할때 당장에 効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敵對視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善意表明은 될것임으로 우리에게 조금도 不利한 결과는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과거 「크메르」와 韓國과의 關係에서 筆者가 직접 체험한 經驗談 하나를 參考로 記述하고자 한다.

美國과 「크메르」의 關係가 좋지 않았던 65年初 「뉴스위크」의 「버너드·크리셔」記者가 모처럼 「크메르」에 入國이 許可되어 「프놈펜」에 들어가 取材하고 나와서 紀行文을 「뉴스위크」誌에 썼는데 그 記事中엔 「시아누크」의 私生活이라든가 또는 그의 母后가 「프놈펜」에서 公娼을 經營하고 있다는 등 자못 興味本位의 이야기들이 쓰여있었다.

그래서 外信部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그 興味꺼리 記事를 그대로 번역해서 新聞에 轉載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얼마후 外務部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그 記事때문에 「프놈펜」에 있던 우리 總領事館이 追放될 지경이 되었다고 하며 무슨 方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記事를 「프놈펜」에 있던 北韓側總領事館에서 「프랑스」語로 번역해서 직접 「시아누크」에게 보여주고 韓國의

主要日刊紙에서 「시아누크」와 그 王家를 모독하는 惡意的인 記事를 실었다고 中傷모략을 했던것이다.

元來 「시아누크」라는 사람은 東西兩陣營間의 줄타기 名手일뿐 아니라 氣分派이기도 해서 자기의 氣分여하에 따라 即興的인 言動을 곧잘 하는 사람이며 또 國際輿論에 대해 상당히 敏感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생각끝에 이번엔 「시아누크」와 그의 中立外交를 極口 칭찬하는 解説記事를 만들어서 「시아누크」의 사진과 함께 新聞에 크게 掲載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우리 總領事館에서 그 記事를 또 仏語로 번역해서 「시아누크」에게 보이고 韓國의 言論이 얼마나 「시아누크」가 能導하는 「크메르」에 대해 友好的인가를 說明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氣分派인 「시아누크」의 노여움은 풀리고 우리 總領事館도 追放을 冒免하게 되었고 이어 「시아누크」로 부터 感謝의 편지까지 받은일이 있었다.

특히 北韓의 對外進出이 擴張되어 감에 따라 南北韓同時承認國이 늘어나 北韓이 더욱 그와같은 中傷모략을 할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言論도 그점은 조심해야만 할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政府도 必

要에 따라서는 言論의 協調를 求해 되차 國家利益을 위해 協力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國家關係란 늘 實利에 따라 끊임없이 變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의 國家利益을 優先시켜 되도록 敵을 만들지 말고 모든 나라들과 友好親善을 도모한다는 姿勢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有益하다는 점은 새삼 再言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國內적으로는 反共的인 態勢를 굳히면서도 對外的으로는 機敏하고 融通性있고 平和友好志向的인 이미지를 宣揚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賢明한 일이라고 믿는다.

더우기 今年 「유엔」 總會를 앞두고 「크메르」의 赤化, 「포르투갈」의 左旋回, 「아세안」 國家들의 越南 「크메르」 新政權承認추세, 「타이」의 北韓承認 등 外交的으로 우리에게 큰 試鍊이 豫想되는 이때인만큼 從來의 對美偏重을 서서히 脫皮해서 보다 신축성있는 独自の 外交追求의 幅을 넓히는 努力이 要請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外交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美日을 위시한 西方陣營인 만큼 西方側과의 유대 관계는 加一層 強化하면서도 특히 第三世界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開發途上國이며 第三世界の 나라들과 같은 地에 있는 나라라는 印象을 그들에게 주도록 또한 努力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특히 第三世界諸國은 南北對話가 順調롭게 進行이 될때에는 觀望
的이고 中立的인 입장을 취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南北對話의 停滯
期에 있어선 中共의 영향력, 北韓의 비방 그리고 外國軍駐屯 등의
諸要因으로 南北韓의 實情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中共
이나 北韓의 宣傳에 同調하게 될 우려가 짙기 때문에 第三世界에
대한 우리의 弘報活動엔 더욱 큰 부담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고 본다.

그들 第三世界の 大部分의 國家들은 戰後 獨立한 國家들이 많아
舊植民國에 대한 支配를 厭惡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데
따라서 그들은 駐韓美軍을 마치 일종의 植民地統治軍과 같이 착각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駐韓美軍이란 韓美相互防衛條約이라는 兩國間의
雙務條約에 依거해서 駐屯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을 방지하기 위한 抑止力의 役割을 하는 것이며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는 점을 周知시키지 않는限 北
韓의 虛偽宣傳에 넘어가기 쉬운 實情이다.

「유엔」軍司는 애당초 「유엔」安保理에서 決定된 것이지만 中共

은 「유엔」安保理決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으로 「유엔」의 旗幟
下에 있는 全外國軍의 철수문제를 「유엔」總會에서 다루자고 主張
하고 있는데 만약 中共主張대로 된다면 「유엔」總會에서는 駐韓外
國軍 철수문제가 可決될 公算이 많은 것이다.

다음에 統一에 대한 弘報內容에 있어 放送이나 텔레비 등을 통
해 統一問題에 대한 프로를 이따금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反共프로는 많이 있지만 統一志向的인 프로는 全無한 형편이기
때문에 共產主義에 대한 憎惡心이나 경계심은 높일수 있을지 모르
나 統一에의 希望은 전연 가질 수 없게 된다.

현재와 같이 反共一辺倒의 무드속에 젖어있다가 어느 時期에 가
서 南北對話가 또 再開進展될 경우 갑자기 유화적인 方向으로 轉
換하기란 그리 쉽지않은 일이기 때문에 反共的인 프로와 병행 해서
統一志向的이고 南北韓間의 同質性 回復的인 프로같은 것도 마련하
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령 言論에서도 南北對話前엔 北傀로 하다가 7.4 共同聲明後 한
동안은 北韓으로 부르다가 對話가 두절되자 北傀로 다시 환원했는
데 對話가 또 再開되면 또다시 北韓으로 부르게 될 형편이고 보면
차라리 계속 北韓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相對方을 傀儡이라고 하면서 한자리에서 對話를 하자는 것도 사실 不自然한 이야기일지 모르니 그런 사소한 것은 가리지 말고 大局的立場에서 一貫性있게 대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72年9月28日 당시 李厚洛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은 言論界에 보내는 公翰을 통해 南北會談의 報道에 있어서 보다 大局的이고 승화된 次元의 보도를 함으로써 南北關係의 前進을 위해 協助해 줄것을 要請하면서 불필요한 感情의 誘發로 對話가 저해되는 불행한 結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한 일도 있었지만 南北對話가 비록 停滯期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感情的인 報道로 맞설 必要까지는 없지않나 생각된다.

相對方이 이쪽을 비방하는 것은 비열하고 惡意的인 것으로 우리 國民들이나 國際社會에서도 빈축을 살뿐임은 말할것도 없고 그럴수록 우리는 좀더 높은 次元에서 의연하고 寬容을 갖고 대함으로써 그들의 反省을 促求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일지 모르겠다.

다음엔 政府서 各大学이나 新聞社에 부설되었거나 또는 独立的인 民間團體인 各種安保, 統一關係研究所를 効率的으로 活用하는 方途를 모색했으면 좋을것 같다.

政府서 各研究所의 性格과 能力을 파악해서 特定한 分野를 選定

해서 各研究所에 体系的이고 깊이있는 研究를 持續性있게 하도록
위촉하는 것도 그 方法의 하나일 것이다.

가령 北韓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部門 東歐圈問題 中蘇問題 韓
國의 安保問題, 東南亞問題, 日本問題 등등 各研究所別로 테마와 研
究費를 주어 研究論文을 위촉하면 政府로서도 研究所의 機能을 살
려 有益한 研究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研究所는 그러
한 特定테마에 대해 지속적인 研究를 함으로써 그 分野의 專門家
를 자연 養成하게 되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수 있을것 같다.

筆者가 소속하고 있는 研究所도 研究委員을 兼하고 있는 社員이
20 余名이나 있지만 社의 財政形便으로 研究手當도 일체 支給못하
고 있는 실정인데 가령 몇가지 專門的인 題마를 주어 研究論文을
쓰도록 한다면 좋은 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뿐아니라 執筆者 자신
도 자연 그 分野에 대한 知識을 넓히게 되어 專門家가 될수 있
을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新聞社라고 해서 弘報分野만 爲主로 할게 아니라 다른
專門分野에 대한 研究課題도 마끼면 더욱 內實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各研究所間의 有機的인 協力關係도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
다.

가령 어느研究所에 어떠한 書籍이나 資料가 있는지를 統一院이나 또는 各研究所마다 서로 대략 파악하게 된다면 必要할때 相互協調를 할 수 있는 機會가 많아지리라 보고 본다.

그리고 統一院 같은데서 各研究所사람들이 피차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여 서로 效果的인 研究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方案을 討議해 보는것도 좋을 것같이 생각된다.

다음에 南北關係에 대한 政府의 弘報體系를 可能な 限 一元化해서 할 必要가 있을것 같다.

지난번의 西海島与에서의 北韓側 漁船事件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엔」軍司令部나 우리國防部側의 發表가 서로 共同步調를 이루지 못했던것이 사실이었는데 그러한 경우엔 南北韓關係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일단 南北調節委의 機能을 살려 調節委서 問題를 提起 檢討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엔 安保나 統一問題들 政治思想 教育을 담당하는 教育機關의 充實化와 弘報要員의 養成이 必要하다고 본다.

그동안 統一院의 統一研修所에서는 72年부터 政治 思想 統一 安保分野에 걸친 短期教育을 大學教授, 中高校長등을 상대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와같은 研修所의 性格을 높여서 가령 統一大學院 같은 專門教育機關으로 발전시켜 教育期間도

約 5~6 個月 등으로 늘려 統一問題, 南北關係, 共產主義에 대한 研究 등 名實상부한 政治, 思想 教育機關으로 만들어도 좋을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教育對象者도 公務員, 軍人, 國營企業체 등뿐 아니라 民間企業체라든가 社會各階層 사람들을 広範하게 포함시켜 그들이 教育을 받은 다음 자기 職場에 가서 職場別로 教養講座를 갖게하여 國民의 政治, 思想教育을 확대 강화시켜나가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다.

그리고 統一問題와 관련된 各種 弘報冊子발행에 있어 여지껏은 주로 專門家用이라고 할 水準이 높은 것이 為主인것 같은데 비록 같은 內容이라 하더라도 水準을 좀 낮추어 一般大衆用으로 普及시키기 위한 冊子도 발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安保나 統一問題 등에 대해 問答形式으로 하여 教育水準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理解가 갈수 있는 內容으로 만들면 더욱 有效할 것으로 본다.

南北對話는 5千萬民族의 念願인 동시에 國際社會의 共通된 興望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起伏은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再開進陟될수 밖에 없는 南北韓의 共通의 當爲의 課題인 것이다.

北韓內部事情도 南北對話없는 緊張 敵對關係로 되돌아가 그들의

소위 「人民經濟分野」를 계속 희생시켜 가면서 緊張持續 政策만을 無限定 계속해 나갈수만은 없는 일일것이다.

南北對話의 進行과 더불어 北韓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부 軍事負擔을 줄여서라도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南北對話의 再開에 應하게될 時期는 그들이 南韓을 武力이나 또는 間接侵略의 方式으로 赤化統一할 수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고 또 南韓內의 國內情勢가 安定될 때일것으로 展望된다.

그리고 설사 對話가 再開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理由로 해서 또다시 中斷될는지 모르는 다분히 變數를 지닌것임은 물론일것이다.

그렇지만 南北韓이 그야말로 民族의 生存마저 위협하게 될 武力紛爭을 회피하고 相互不信, 憎惡와 敵對感, 反目과 嫉視등 南北間에 얽혀있는 不和와 對立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南北間의 꾸준한 對話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에의 強烈한 意志와 忍耐力을 갖고 모든 난관을 克服해 가면서 北韓으로 하여금 對話의 자리로 다시 나오도

특 誘導해 나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北韓이 공연히 外部情勢의 變化에 현혹되거나 南韓内部事情을 誤算하여 위험한 武力挑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편으론 철통같은 對備態勢를 갖추고 終局엔 大韓民國의 正統性, 壓倒的 多數인 人口와 國力面 등으로 보아 窮極的인 祖國의 民主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内部團結과 國力培養에 總力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